

계보와 언약

©2009 년 3 월 21 일 아세르 인트레이터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순간 중 하나는 초기에 엄청난 위업을 나타낸 솔로몬 성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엔 네 종류의 주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1. 정부 우두머리
2. 대제사장
3. 예배 인도자
4. 재정 담당자

정부의 우두머리는 솔로몬 왕, 곧 다윗과 밋세바의 아들이었습니다. **밋세바의** 아들이 지도권을 잡게 된 것이 이상해 보입니다. 다윗에게는 아내가 많았는데, 그 중엔 경건한 아버가일도 있었지요. 밋세바는 다윗과 더불어 인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간통죄를 지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 사독이었습니다. (사독의 이름으로부터 사두개파, 곧 사독의 후손이라는 명칭이 나왔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짜독 → 짜두키].) 아론의 삶 속에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역사상 가장 커다란 우상숭배인 황금 송아지 사건입니다.

예배 인도자이자 예언 사역의 지도자(**대상 25:1, 5**)는 헤만(**대상 6:33, 15:17**)이었습니다. 헤만의 아버지는 요엘, 할아버지는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요엘이 성경에서 이름을 낸 이유는 단지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 뿐입니다(**삼상 8:2-3**). 사무엘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데에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적 유산을 후손들을 통해 신실하게 이어가셨습니다.

게다가 사무엘과 헤만은 모두 고라의 자손입니다. 고라는 역사상 최악의 반역을 이끈 사람으로, 얼마나 악했던지 성경은 땅이 열려 그와 가족들을 삼켜 즉각 지옥 불로 떨어지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민 16**). 그러나 최소한 고라의 자손 중 하나가 살아남아 그로부터 ‘고라의 자손들’이라고 알려진 시편 기자들이 나왔습니다(**시 42, 44, 45, 46, 47, 48, 49, 84, 85, 87, 88**).

재정 담당자는 슬로못이었습니다(**대상 26:26-28**). 이 슬로못은 모세의 7 대손이었습니다(**대상 23:18, 24:22, 26:24-25**)! 어쩌면 인간으로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라 할 수 있는 모세가(**신 34:10, 히 3:2**)자신의 유업을 이을 언약의 후계자가 없었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때 일어난 기근 동안 애굽의 모든 금전을 모으셨습니다(**창 47:14**). 그 돈의 상당량은 그 후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출 12:35**).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 왕들, 장군들의 기부와 더불어 그 돈은, 모세의 씨앗에게 건네졌습니다.

대상 26:26

이 슬로롯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성물을 보관한 모든 공간을 관리하였다. 이 성물은 다윗 왕과 족장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 지휘관들이 구별하여 바친 물건들이다

성경에 나오는 계보들은 민족적 자긍심을 위한 것이 아니요 (눅 3:8) 지적 변론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딤후 1:4). 그러나 계보들은 하나님의 당신의 언약 상대자들에 대한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밋세바의 간음을 뛰어넘었습니다. 아론의 우상숭배도, 고라의 반역도 뛰어넘어 그들의 후손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사명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신실하심은, 비록 일곱 세대가 걸렸음에도, 증명되었습니다. 한 인간은 기껏해야 한 세대 동안 신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 이상, 심지어 영원토록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이는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신 7:9

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주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우시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데에만도 3 세대의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저희 사역이 협력 가운데 3 세대를 향하고 있는 국제 티쿰 사역의 형제들 (댄 저스터, 에탄 쉬쉬코프, 데이빈 루돌프, 단 핀토)과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의 가정과 조상들에겐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 가운데 그 사명을 행한 이가 하나도 없을지언정, 여러분은 언제든지 어디서든 그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저희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저희 조상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언약의 사명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2,000 년 동안 죽은 듯했어도 말입니다. “취하는” 것이 저희의 유업입니다.

새 언약에 위의 예들을 더할 때, 세레 요한이 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었으며 (눅 1:5), 다소의 사울(사도 바울)이 사울 왕의 후손이었으며(롬 11:1, 빌 3:5), 또한 요셉 (예슈아의 육신의 아버지)이 다윗 왕의 후손이었음을 여러분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마 1:16).

유대 민족의 역사는 죄악과 반역, 완고함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민족에게 신실하셨다면, 분명히 믿기로 작정하고 영적 유업 가운데 행하기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신실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주 조금밖에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기도제목

1. 1000 일 - 온 이스라엘은 가자의 하마스에게 길라드 살리트가 1000 일 동안 잡혀 있었다는 것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가 놓여지기를, 그리고 의로운 심판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2. 연정 - 네타냐후는 여전히 더 넓은 연정을 이루고자 분투 중입니다. 그는 바락을 국방부 장관으로 세우고 싶어하지만, 바락의 정당 (노동당)은 연정에 가담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나뉜 상태입니다. 네타냐후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 한국 - 아세르와 베티가 아주 집중적인 일정을 계획으로 한국을 이번 주에 방문합니다. 예슈아의 왕국을 증거하고 육체의 연약을 이길 인내로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Shaul Byunghyun Go